

②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고난, 근심의 근원인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 | |
|--------|--|
| 히 12:2 |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 히 3:1 |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
| 창 5:24 |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시체를 무덤에 두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무덤에는 뼈도, 머리카락도 없는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두었던 무덤이 비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망의 승리자이심을 보여주며, 정의가 마침내 악을 이기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주님이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사망의 결박을, 질병의 결박을, 고난의 결박을, 가난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둠과 불의에서 승리한 자로 살겠다는, 부활의 증인, 내가 본 빈 무덤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 중)

1.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승리자이심을 보여줍니다.

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바로 그 순간부터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롬 5:12 이렇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②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사망을 정복하고 무덤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승리자로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쏘는 살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후 5: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 빈 무덤은 정의가 마침내 악을 이기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①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예수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이 득세하고 악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삼일 후에는 정의와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환경 가운데서 악이 득세하며 정의의 편에 선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현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낙심 하거나 악을 행하는 무리들과 연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악은 마침내 무너지며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 5:11-12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3.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신 분임을 가르쳐줍니다.

①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역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술한 고난과 역경, 슬픔과 좌절을 주며, 죽음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의 한마디 :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